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운 바보’

— 김수환 추기경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가끔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그리운 얼굴, 소중한 얼굴들을 만나곤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문득 ‘그립고도 소중한 바보’가 떠오릅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올해는 추기경께서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12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으신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사제의 길이라 여기셨던 분.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여섯 대통령과 함께하셨던 서울대교구장으로서의 재임 기간(1968~1998년) 동안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추기경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의 시간을 사셨던 분. 그 역사의 순간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아직도 자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국내에서뿐 아니라 아시아교회와 보편교회 안에서도 그 삶이 기억되는 추기경의 선종 10주년을 맞아 서울대교구는 그분이 사셨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되새기며 이어가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개인들뿐 아니라 교구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 안에 그분의 마음과 손길 그리고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되새기며 따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더욱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선종 10주년인 2월 16일을 전후하여 한 해 동안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라는 한 개인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되새기며 이어가는 결심과 실천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제품을 앞두고 이루어진 면담에서 ‘기도하는 사제가 되라’는 추기경의 말씀을 되새기며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성체조배의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또한 “신앙이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직무와 직책을 통해 타 교구뿐 아니라 세상에도 봉사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바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바보로 살고 가신 그분의 삶을 흉내내 보았으면 합니다. 추기경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노력이 그분을 이 시대에 또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